

光令里와 郭支里 遺蹟·遺物의 比較*

— 濟州島 先史文化에 對한 考古學的 研究 —

金宗業·李清圭

目 次

I. 序	V. 郭支里 遺蹟과 遺物
II. 濟州島의 自然環境	VI. 兩遺蹟의 文化內容
III. 西北海岸 地域의 立地條件	VII. 編 年
IV. 光令里 遺蹟과 遺物	VIII. 結—綜合考察

I. 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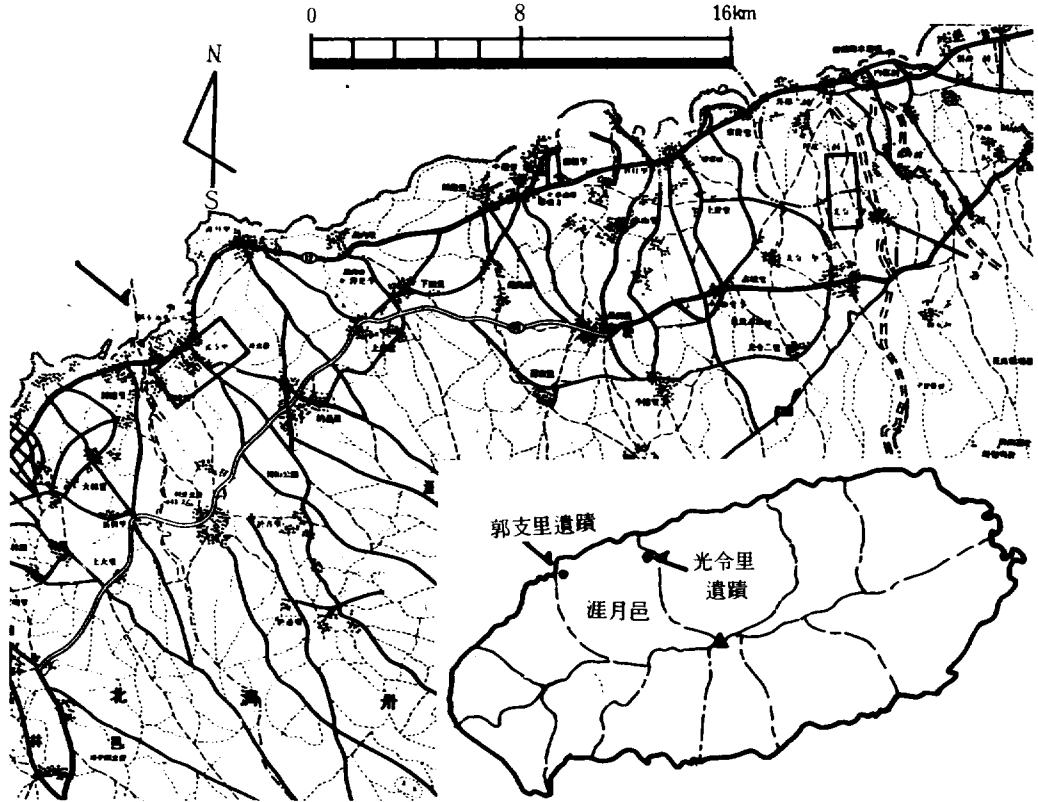
濟州島에서 郭支里유적과 光令里 유적은 각기 貝塚과 支石墓群으로 학계에 널리 알려져 왔던 이 지방 無文土器 단계의 중요유적이다. 입지조건을 보면, 두 유적 모두 제주도 서북해안에 위치하나 전자는 해안에 보다 가깝고, 후자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내륙지방에 근접해 있어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그림1)

이와 같은 두 측면, 즉 서로 다른 환경적 조건하에, 비슷한 수준의 문화단계에 있는 두 유적에 대해 考古學的 現地調査를 실시하고, 그래서 얻어진 자료를 비교해보면, 이 단계에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분포한 무문토기관계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얻고, 장래 연구의 試金石이 되지 않을까 하여, 同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兩遺蹟에 대한 現地調査에 있어, 장기적이고도 계획적인 全面發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제주도 무문토기유적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로 만족한다면, 그래서 장래 보완·수정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면의 연구에 다소나마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서 自足한다면, 제한된 여건상 극히 부분적인 pi.調査와 地表調査로도 同 연구를 감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1984년 6월 1개월간에 걸쳐 光令里 유적일대의 유물분포지역에 대한 地表調査

* 이 論文은 1984年度 文敎部 學術研究 造成費에 依해 研究되었음.



(그림 1) 光令里 및 郭支里遺蹟 位置

및 支石墓形式調查를 실시하였고, 8월 중순경에는 郭支貝塚에 대한 pit調查를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郭支貝塚 유적에 대해서는 1979년 李白圭가 발굴 조사한 바 그 결과의 개요를 발표한 논문이 또한 있다.¹⁾

本考에서는 앞서의 현지조사결과와 李白圭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종합 정리 기술하고 비교할 것인 바, 우선은 兩遺蹟의 환경적 要因을 정리한 다음, 유적 및 유물자로 내용을 기술한다.²⁾ 그리고 나서 兩遺蹟의 文化內容을 정리하고 編年을 한 다음 끝으로 상호비교의 관점에서 양유적의 문화내용을 앞서 정리한 環境의 要因과 시간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李白圭, “濟州島 無文土器에 對한 一考察: 濟州島の 考古學的 調查研究(1)” 『考古學』 第五·六合輯, 1979, pp. 141~162.

2) 兩遺蹟의 調查結果 一部는 一次 다음의 論文과 報告書에 의해 발표되거나 현재 인쇄중에 있다.

① 李清圭, “濟州道支石墓研究(1)-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 支石墓群” 『耽羅文化』 第4號, 1985, pp. 25~50.

② 李清圭, “光令里出土石器和 金海式土器” 『濟州島研究』 創刊號, 1984.

③ 濟州大學校博物館, 「郭支貝塚」, 濟州大學校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1輯, 1985.

II. 濟州島의 自然環境

濟州도는 韓半島의 西南端, 동지나해의 北端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東西길이 73km, 南北길이 31km, 총면적 1,820km²로서, 한반도 육지부와는 130km 떨어져 있다.

기후적으로 볼 때 연평균 강우량 1400~1800mm, 평균 15°C로서 온난·다습한 아열대 몬순운型の 기후지역에 속하며, 한편으로는 주변해역을 흐르는 쓰시마난류 때문에 寒暑의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은 海洋性기후를 보여 준다. 그러면서 또한 해발 1950m의 한라산을 정점으로 한 山岳型地勢의 영향을 받아, 해발고도에 따라 暖·溫·寒帶의 기후대를 갖기도 한다.³⁾

地形을 볼 때 한라산을 主峰으로 하여 東西斜面은 매우 완만한(3°~5°)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남북방향에서 급한 斜面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형의 대체적인 모양은 新世代 第4期의 화산 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즉 제주도 地盤의 형성은 第3期말에 끝나고, 그 지반 위에 第4期에 들어서 2회에 걸친 용암의 분출로 熔岩台地가 형성되고, 그후 다시 2회에 걸친 용암의 분출로 오늘날 제주도 지형이 완성되게 된 것이다.

지형이 이처럼 화산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 토양의 70%는 火山灰 토양으로 구성되며, 이 토양은 화학·물리적인 성질로 보아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농업생산의 障礙요인을 갖고 있으며, 또한 同 토양에 火山쇄설물이 많고, 그렇게 형성된 土層의 두께도 얇아 농업생산성이 더욱 낮다.

한편 火山灰土는 保水性이 아주 약하고, 그와 동시에 제주도 지하층은 節理構造를 갖기 때문에 滲水狀態가 이루어질 수 없어,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물이 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河川은 永久流水川인 경우가 드물며, 그나마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긴 斜面과 넓은 용암대지가 발달한 동서쪽으로는 그 발달이 빈약하고, 주로 남쪽과 북쪽 斜面에 많이 분포한다. 그와 동시에 生活用水로 많이 이용되는 湧川 또한 동서해안보다는 남북해안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본래 물이 귀한 제주도에 있어, 이러한 用水分布가 古來로부터 住民이 거주할 수 있는 입지요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이유와, 경작지의 대부분은 풍화작용의 진전도가 높고, 토양이 비교적 비옥하고 평탄지가 많은 해발 100m 이하 해안지방에 조성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地形 및 土壤요건 때문에, 자연히 촌락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제주도경우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농경은 田作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⁴⁾ 그것도 생산량이 많지 않아, 여기서 다루는 無文土器時代 경우, 식량의 상당한 부분은 수렵·어로 또는 일부 목축으로 충당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의 動物相은 기본적으로 舊北區 滿州亞區에 속하므로 육지부의 그것과 일치된다고 본다.

3) 濟州道, 「濟州道誌(上)」 1982, pp. 517~598.

4) 姜京濤, 「濟州文化의 再照明: 農耕方式과 관련하여」 「濟大新報」 第262·263號, 1985.

그래서 당대주민의 수렵대상이 되었던 포유류 동물은 경상도 남해안 여러 貝塚유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는 멧돼지, 대륙사슴, 노루 등이고 목축의 대상으로 소가 있었음이 당연하며, 실제로 광지패 총유적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

한편 제주도는 그 자체 섬이어서 바다에 둘러 있는 바, 水深 100m 내외의 대륙붕이 너르게 펼쳐 있고, 세계최대 난류의 하나인 쿠로시오해류의 支流, 쓰시마해류가 제주도 서쪽을 우회하고 있어, 魚類 및 조개類 번식에 극히 좋은 여건을 구성하고 있다.

근래에 잡히는 주요 水族을 보면, 魚類로 멸치, 고등어, 삼치, 돔등과 조개류로는 소라고동, 전복, 굴등이 主種을 이르는 바, 역시 先史時代 무문토기시대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로기술의 미발달로, 당시는 近海에서 주로 조개류를 많이 채취하였으리라 생각되며, 이 또한 광지패총 유적에서 확인한 바 있다.

Ⅲ. 西北海岸地域의 立地條件

光舍里와 郭支里가 위치한 제주도 서북부해안지역 또는 涯月邑 지역은, 남제주군 安德面 일대와 함께 島內에서 가장 內陸度가 높은 지역으로 해발 100m 이내의 평탄한 대지가 평균적으로 해안에서 3km까지 이른다.

이 지역은 또한 제주도를 4개의 土壤群으로 나누었을 때, 크게 東貴-舊殿·龍興 토양군에 속하며, 그중 다시 東貴-舊殿統에 속하는 바, 土層의 두께가 평균 40~50cm이고 자갈이 35% 미만으로 제주도內에서 가장 경작하기 좋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⁵⁾(그림2)

그러면서 이 지역은 用水條件이 비교적 좋아서 海岸에 湧川이 발달되었고 그 중 光舍里와 郭支里一帶는 吳洪錫이 1960년 현지조사를 하여, 제주도전역에 대해 음료수의 사용유형을 구분한 바에 따르면 井戶와 奉天水의 방식으로 取水가 가능한 지점으로 여타 다른 지점과 구분된다.⁶⁾(그림3) 그와 동시에 양유적에는 각각 하천으로서 外都川과 錦城川을 끼고 있는 바, 이러한 여러조건이 어울려 無文土器人들이 어느 지역보다 거주하기 용이하였으며, 그에 따라 많은 유물·유적을 남겨 놓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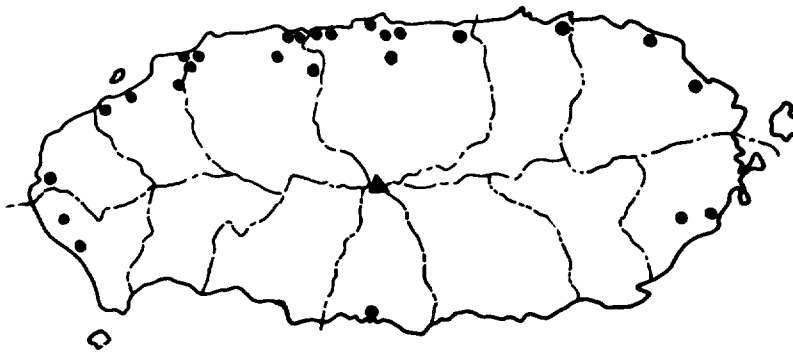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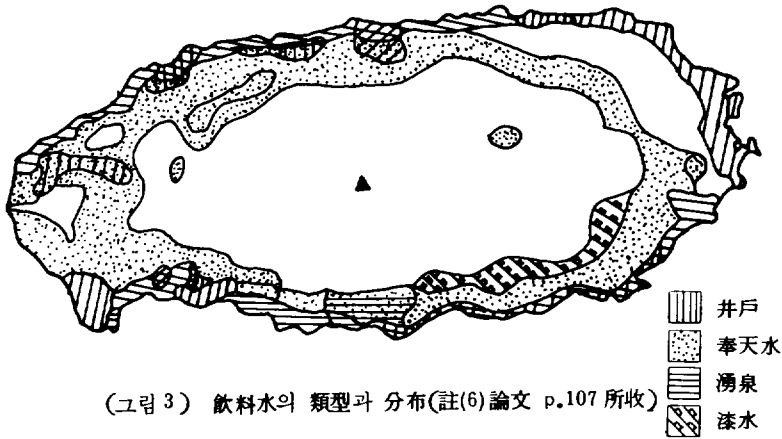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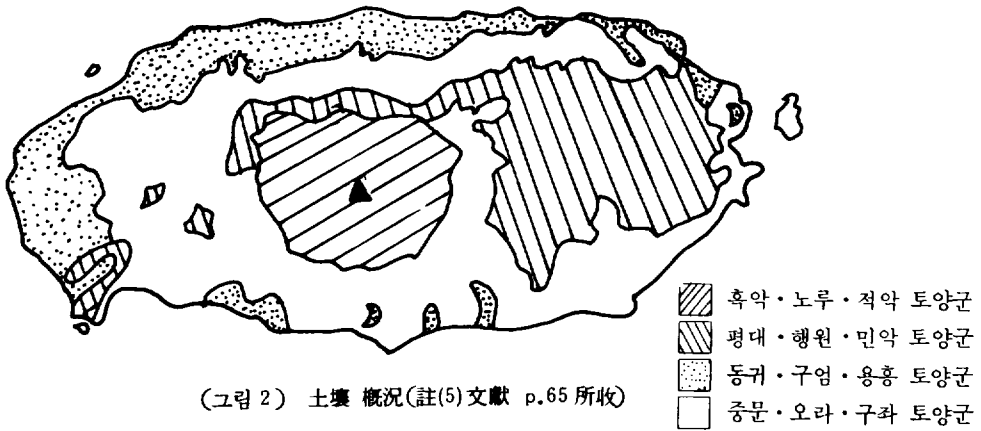
이처럼 地形·土壤 및 用水條件이 좋은 지역은 古來로부터 촌락이 잘 발달하였으며, 그와 같은 양상은 지금까지 발견확인된 無文土器關係遺蹟의 분포를 보아도 명백하게 드러난다.⁷⁾(그림4)

이러면서도 光舍里와 郭支里 유적의 입지조건이 다른 것은 앞서 밝혔듯이 전자는 해발 70~90m에, 해안에서 3km 내외 떨어진 구릉지대에 형성되었고, 후자는 해발 30~40m에, 해안에서의 거리 0.7km 내외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후자가 보다 어로생활에 용이하였으리라는 점과 해안에 발달된 湧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

5) 濟州道, 「濟州道誌(下)」 1982, pp. 6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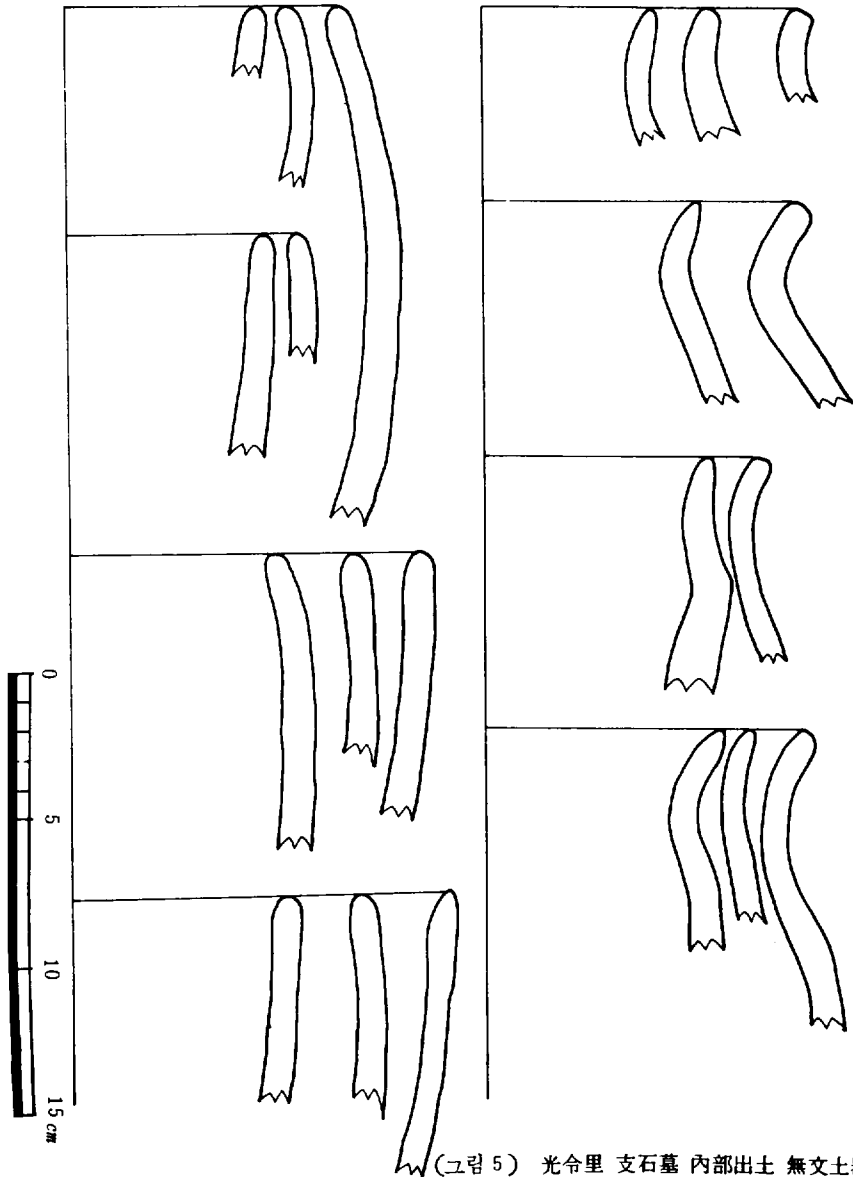
6) 吳洪哲, “濟州島聚落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경희대학교대학원博士學位論文」 1973, pp. 107~110.

7) 註1) 論文參照



다. 光令里 경우 해안에 형성된 湧川의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다행히 外都川이 해발 1200m 어승생오름의 湧川에서 발원하는 永久流水川이어서 이를 주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郭支里의 錦城川은 경우가 달라서 乾川의 성격을 띠며, 그 때문에 해안의 湧川과 井戶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았을 것이며, 이러한 조건은 각 유적의 거주분포상태를 달리하게 만든다.

즉 광지리 유적의 분포는 錦城川과 관계없이 해안을 따라 가로 너르게 펼쳐있는데 반해서, 광령리 경우는 外都川을 따라 길게 유적이 분포하며 이러한 사실을 유물분포에 대한 표토조사에 의해 쉽게 밝혀질 수 있었다.



(그림 5) 光令里 支石墓 内部出土 無文土器 口緣部

IV. 光令里 遺蹟과 遺物

1. 土 器

(1) 無文土器(그림5)

앞서 이야기했듯이 광령리유적은 外都川沿邊을 따라 자리잡고 있으며, 그 일대 유물산포지역에 엄청난 양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물은 무문토기이다. 무문토기는 同지역의 支石墓群을 조사하면서 그 내부에서도 다량 수습되었는 바, 同 유물이 地表에 산재한 무문토기가 같은 형식을 보이므로 本考에서는 편의상 이 支石墓出土 무문토기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대체로 支石墓 내부출토 무문토기편들은 출토상태를 보다 특별히 副葬用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고, 지석묘를 축조할 때, 支石의 고임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 그 틈틈에 끼웠거나 받쳤던 것들이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당시 생활지역에서 발견되는 無文土器와 同一한 것이 되겠다.

同土器의 대부분은 아가리가 밖으로 크게 벌어진 것이나, 상당한 숫자로 直立 또는 內傾의 深鉢形土器 口緣部片도 있다.

胎土는 회석·장석·각섬석등이 포함된 赤褐色 점토가 주류를 이루며 內·外土의 區分이 거의 없다. 일부 절면을 빗질하여 다듬은 흔적이 보이거나 대부분 물손질하여 다듬었으며, 육지부의 전형적인 無文土器보다는 단단하고 두터운 편으로 두께는 1cm가 보통 넘는다.

(2) 金海式 土器(그림6)

광령리 일대의 유물산포지에는 앞서의 무문토기와 함께 打捺무늬 灰色硬質土器 즉 金海式土器가 함께 발견된다. 두 토기 형식이 동지역에서 시기적으로 공존하는지 여부는 소규모 테스트핏트조사를 하여 同一 층위에서 共伴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분명하게 밝혀졌다.

이로써 同地域 출토 무문토기는 外反口緣이 주류를 이루는 그 형태에서 뿐만 아니라 金海式土器에서 공반관계로 보아 末期形式의 무문토기임이 분명하게 되었으며, 同 광령리 김해식토기와 무문토기의 공반은 支石墓 내부조사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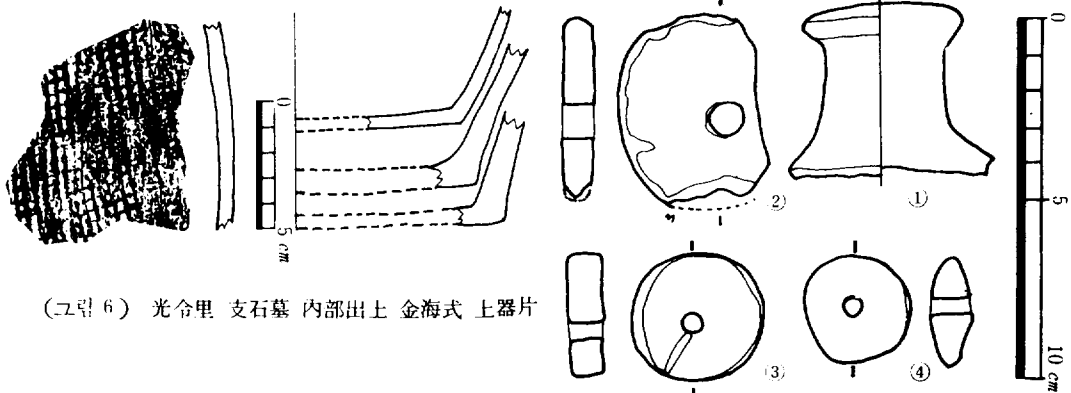
표토채 집된 金海式土器片에는 赤褐色軟質 또는 瓦質系統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으며, 灰色 또는 옅은 灰青色·黑灰色 계통의 硬質土器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두께는 0.4~0.6cm 정도이고 아가리과편은 밖으로 크게 벌여졌으며, 바닥편은 전부 平底이다.

장식된 무늬는 다른 지방의 김해식토기와 마찬가지로 格子文과 돛자리무늬가 주류를 이루고, 간혹 가로줄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진 예도 있다.

(3) 黑色土器

여기서 말하는 黑色土器라는 것은 灰褐色의 고운 瓦質胎土에 표면만 흑색인 토기로, 이와 같은 土器는 역시 末期無文土器·金海式土器와 함께 서울 江東區 風納洞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다.⁸⁾ 대

8) 金元龍, 「風納里包含層調査報告」 서울大考古人類叢書 第3輯, 1967, p. 2.



(그림 6) 光令里 支石墓 内部出土 金海式 土器片

(그림 7) 黑色土器 뚜껍꼭지 및 土製가락바퀴

체로 前代 청동기시대 후기의 흑색마연토기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光令里 유적에서는 支石墓에서 同胎土質의 寶珠形 뚜껍꼭지편이 출토되었는데, 역시 비슷한 모양의 유물이 上記의 풍납동 유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그림 7-①) 한편 同형식의 토기파편을 이용하여 가락바퀴를 만든 것도 지표 채집되었는데, 두께 0.4cm의 토기편 가장자리를 둥글게 다듬어 원판형을 만든 다음, 가운데에 송곳 모양도구를 돌려가며 구멍을 뚫은 것이다. (그림 7-②)

2. 土製 및 石製 遺物

(1) 土製 가락바퀴

앞서 말한 흑색토기 가락바퀴 이외에 흙으로 빚어 만든 가락바퀴가 유물산포지와 支石墓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전자는 주판알 모양을 하고, (그림 7-④) 후자는 원판모양을 한 것으로 (그림 7-③), 광지패총유적에서도 同 一 형식의 가락바퀴가 다량 출토되었다.

(2) 石製品

광령리 일대의 유물산포지에서는 土器片 이외에 다량의 石器製品이 흩어져 있었으며, 이로써 광령리 당대 주민은 생활도구에 있어 石器에 상당히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김해식도기시대 또는 초기철기시대에 진입했으면서 무문토기와 석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유적으로 육지부에서 대표적인 유적으로 한강상류의 경기도 加平郡 馬場里 유적을 들 수 있으며,⁹⁾ 同 유적의 보다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그래서 鐵器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적은 馬場里 I 期文化의 성격이 同 광령리 文化를 이해하는 많은 시사를 던져준다.

9: 金元龍, "馬場里冶鐵住居址", 『歷史學報』 第50·51輯, 1971, pp. 111~137.

필자가 수집한 石器類는 총 60여점이었으며, 대체적으로 추정되는 용도에 따라 그 내용을 분류하면 ①工具類로서 도끼, 자귀, 대패 및 망치류 ②調理具로서 공이·몽돌과 갈돌, 갈판·흙돌류 ③기타 용도로서 그물추 및 숫돌등이 있다. 同채집품 중에는 磨製石劍·半月形石刀·石鏃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자 두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三角形石刀 1점, 有莖石鏃 1점이 기왕에 동지역에 출토·수집된 바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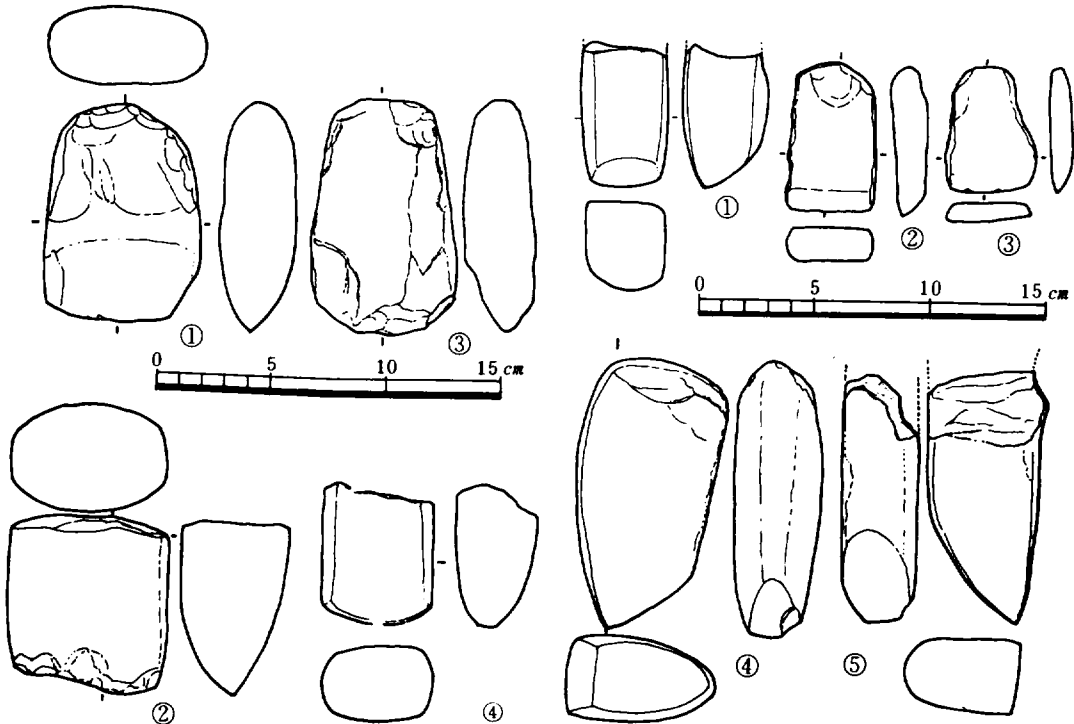
이제 앞서 분류한 순서대로 수집된 석기를 설명하겠다.

A. 工具

工具의 대부분은 나무를 자르거나, 다듬는데 사용한 木工具이며, 대표적인 것으로 1차 가공도구로 도끼류와 2차 가공用으로 대패 및 자귀류를 들 수 있다.¹¹⁾

① 도끼(그림8)

도끼는 조갯날모양의 蛤刃磨製石斧가 2점(그림8-①), 박편떼기수법으로 날을 만들어 날이 거친 도끼 2점(그림8-②), 전체모양은 도끼와 같으나 날부분이 일정한 폭의 무딘 면을 가졌으므로 한편으로는 공이처럼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도끼 2점(그림8-④), 그리고 큰 박편으로 만들어진 打製石斧 2점이 이에 속한다(그림8-③).



(그림 8) 光令里出土 돌도끼

(그림 9) 光令里出土 네모도끼·대패·자귀

10) 秦聖麒先生수집, 濟州島民俗博物館所藏品.

11) 盧熾鎮, “有溝石斧에 對한 一考察” 『歷史學報』 第89輯, 1981, pp. 1~72.

② 대패

扁平斷刃石斧 또는 石鑿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은 전체평면모양이 장방형이면서 石質이 무른 응회암만을 石材로 사용한 길이 7cm 이상의 대패를 들 수 있고(그림9-②), 다른 하나는 길이가 보다 작아 5cm 미만이며, 평면형태는 사다리꼴, 그리고 石材로는 보다 단단한 슬레이트 등을 사용한 것으로(그림9-③), 두 종류 간에 날이 한 쪽에만 만들어진 점에서는 공통되나 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자귀

광령리출토 자귀를 분류하면 손자귀, 홈자귀(有溝石斧)가 있고 그외 자귀날 파편과 미완성자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도나 형태로 보아 일반 도끼보다는 자귀에 가까운 네모도끼(柱狀石斧)를 들 수 있다.

손자귀는 1점이 발견되었는데, 머리부분을 손에 쥐기 좋게 둥그스름하게 다듬은 것으로 배부분이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그림9-④). 홈자귀 또는 有溝石斧는 半月形石刀와 함께 農耕掘地具로도 생각되는 것으로 2점이 확인되었다(그림9-⑤). 한점은 평평한 배쪽에 홈이 있고, 또 한점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등쪽에 홈이 나 있어 자루를 묶을 수 있게 하였다.

네모도끼 혹은 柱狀石斧는 날부분만 발견되었는데 횡단면이 네모꼴로서 일반도끼가 장타원형인 것과 구분되며, 날도 한쪽에만 成形된 것이다(그림9-①).

④ 돌망치와 돌칼

돌망치는 얼른 보기에 도끼처럼 보이나, 날부분에 넓은 면이 있고 거칠어 固形物體를 깨뜨리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기이다. 모두 4점이 발견되었다(그림10-①).

돌칼은 마치 半月形石刀 미완성품처럼 보이는 打製石刀로서, 날은 둥근곡선을 그리고, 곧바른 등쪽에 폭 1cm 정도의 면이 형성되어 있어 손에 쥐기 좋게 하였다(그림10-②).

B. 調理具

조리구는 우선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곡물等を 잘아놓는 판돌종류와 그를 으깨거나 찧기 위해, 손에 잡고 사용하는 자루모양의 도구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에는 갈판(碾石)과 확돌(그리고 홈돌(凹石)이 있으며, 후자에는 갈돌(石棒), 공이, 몽돌등이 있다. 이러한 石製 조리구가 濟州島 지방에 유달리 많이 발견되는바, 그 가장 큰 이유는 同調理具 石材로 적합한 현무암이 화산지대인 제주도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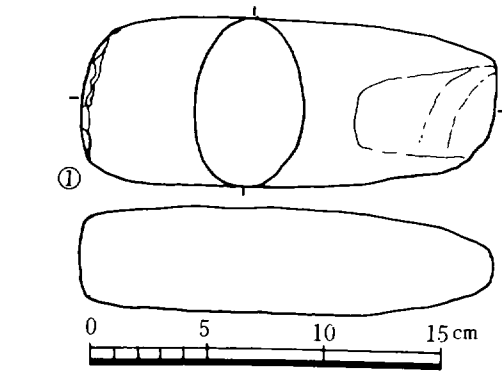
갈판은 갈돌과 짝을 이루어 사용하며, 확돌과 홈돌은 각기 그에 맞는 공이종류와 짝을 이루는디 광령리에서는 홈돌공이와 확돌은 발견되지 못했다.

① 갈판(그림11-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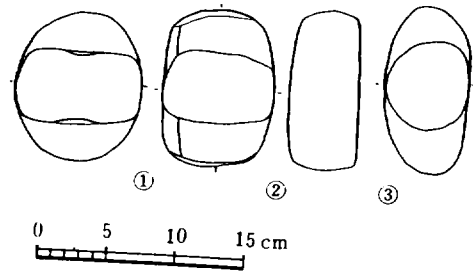
갈판은 필자가 유물산포지내에서 試掘한 소규모 핏트내에서, 횡단면 반원형의 갈돌과 짝을 이루어 발견된 파편 1점이 있었는 바, 비교적 두툼하며 갈돌과 맞닿는 사용면은 평평하다.

② 홈돌(그림11-①)

홈돌은 지름 10cm 정도의 둥그스름하고 납작한 자갈돌을 이용한 것으로, 兩面 한가운데를 우묵 지게하여 소량의 약초등을 놓고 작은 자루로 찧기 좋게 하였다. 이 홈돌은 혹시 사냥용 화살촉끝에



(그림 10) 돌망치·돌갈 및 공이



(그림 11) 光令里出土 石製穀物加工 道具

·발랐을지도 모를 독초를 찧기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¹²⁾

③ 갈돌(石棒)(그림11-④)

갈돌은 앞서 갈판과 짝을 이루는데, 사용면 역시 평평하고 손에 쥐는 부분이 불룩한 횡단면 반타원형 혹은 반원형으로서, 평면형태는 긴 장방형을 이룬다. 예외없이 모두 현무암製이다.

④ 공이(敲石)(그림10-③)

원통모양 자루 양끝을 이용하여 곡물 등의 음식물을 빻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10cm 내외의 석기이다.

2점이 발견되었으며 양끝이 사용으로 인해 곱게 마멸되었는데 이와 비슷한 형태이나 한쪽면만 마멸되고, 그것도 거치른 면을 보이는 망치돌과는 구분된다.

공이 중 1점은 찧는 면이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예는 郭支貝塚에서도 출토되었는 바, 찧었던 음식물등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⑤ 몽돌(그림11-②)

공이와 비슷한 용도에 쓰였을 것이나, 두툼하고 묵직한 자갈돌을 이용한 점이 다르다. 역시 양끝을 사용면으로 하였으며, 磨滅度가 앞서 공이보다 덜하다.

⑥ 확돌공이(그림11-③)

긴 계란 모양의 공이로 2점이 확인되었는데, 길이는 똑같이 10cm 내외로서 현무암제이긴 하나 보

12) 水野清一·小林行雄編:「圖解考古學辭典」1959, p. 281.

다 비중이 높은 것이다. 사용面은 양끝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거의 전면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흑시 확률과 짝을 이루는 공이가 아닌가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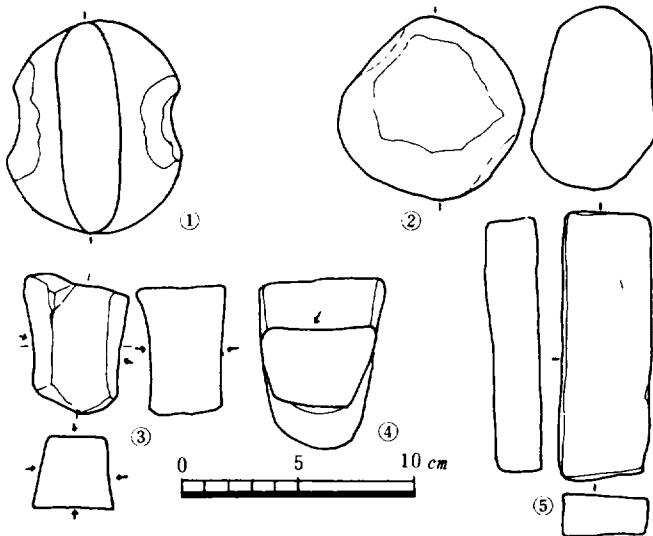
C. 其他 石器

① 그물추와 磨石

납작한 원형 자갈돌의 양측면 한가운데를 꺼내어 몸체에 끈을 묶기 좋게 한 것으로, 그물추로 생각되는 1점과(그림12-①), 두툼한 자갈돌을 이용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갈아내어 표피를 벗겨낸 흔적이 있는 磨石이 한점 발견되었다(그림12-②). 이 磨石은 흑시 토기그릇 겉면을 다듬을 때 사용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나, 역시 확실치 않다.¹³⁾

② 숫돌

숫돌은 유물 산포지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주로 砂岩계통을 石材로 이용하였으며 비교적 小形이고 한쪽面만 아니고 여러面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그림12-③·④). 예외적으로 支石墓內에서 출토된 1점은 현무암 石材를 길이 12cm의 장방형모양으로 다듬은 것이 있다. 비교적 정연한 모습을 하고 있고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副葬用으로 특별제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그림12-⑤)



(그림 12) 光令里出土
그물추·磨石 및 숫돌

3. 支石墓 (사진1-4)

光令리에 소재하고 있는 支石墓는 20여기가 넘는다. 同 지석묘에 대한 정확한 형식과약은 정식 발굴조사에 의해 이루어져야할 것이나, 여기서는 形態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결과에 의존하여 형식을 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上石과 支石이 地上에 드러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식과약이 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크게 전형적인 南方式 및 蓋石式과 아울러 濟州島 特有的 變形支石墓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3) 上同書, p. 525.



사진 1. 光令里 支石墓(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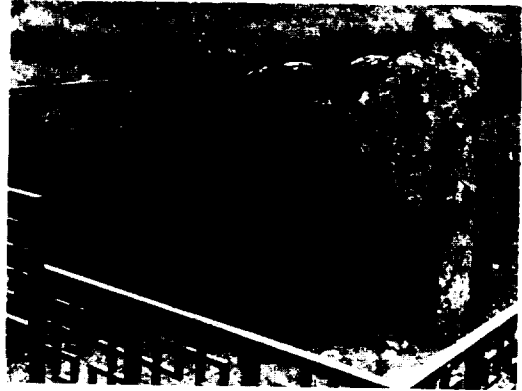


사진 2. 光令里 支石墓(2)



사진 3. 光令里 支石墓(3)



사진 4. 光令里 支石墓(4)

各 지석묘의 형태를 보다 細分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支石이 확인 안되고 넓적한 上石만이 地上에 있는 蓋石式形態.
- ② 塊石狀의 支石 3~4개가 上石을 고인 다소 변형된 바둑판식 형태.
- ③ 上石이 아아취모양을 이루면서 한쪽은 두터워져 지표에 거의 닿아 있고 그 사이에 작은 支石을 끼운 형태.(사진1)
- ④ 上石의 한쪽은 높은 비탈면에 고이고 그 반대편 낮은 곳에 板石狀의 支石을 곧추 고여 높게 들은 형태.(사진2)
- ⑤ 上石의 한쪽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다소 높은 경사면에 고이고, 반대편은 支石이 없고 좌우 양편에만 板石狀의 支石으로 고인 형태.
- ⑥ 앞서와 같은 형태이나 上石이 네모꼴로 되고, 양측면의 板石狀 支石이 2배로 되는 형태(사진3).
- ⑦ 네모꼴 上石의 한쪽 변을 제외한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각 3枚씩 도합 9매의 板石狀 支石이 병풍처럼 받친 형태(사진4).

이중 ③~⑥의 경우 높은 비탈면에 上石을 고일 때, 그 부분에 전부 나즈막하게 작은 塊石狀의 支石을 이용하여 받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전부 그 반대쪽에는 支石이 빠져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형식은 매장부가 앞서 ①·②의 경우처럼, 地表下에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 형태의 지석묘는 전형적인 南方式·蓋石式에서 벗어난 제주도 특수형이라고 불러도 좋으며 그 완성된 형태가 ⑦유형의 支石墓인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앞서 출토토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金海式土器 유입이후 시기의 것인바, 따라서 同支石墓는 韓半島 支石墓중 最末期 형식에 속한다 볼 수 있다.

IV. 郭支里遺蹟과 遺物

郭支유적에 대한 조사는 貝塚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層位에 따라 유물출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土器 경우 그 자체 일정한 형식변화를 보이므로, 이를 토대로 출토된 토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3段階로 時期區分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貝塚發掘은 1979년 2개지점, 1984년 1개지점에서 실시되었고, 편의상 전자경우 각지점을 I·II地區, 후자를 III地區로 하였다. 그 중 第I地區에서는 유물 출토량이 적었으며 따라서 本考에서는 II·III地區 출토유물만 다룰 수밖에 없었고, 兩地區에서는 共히 표토층을 포함해서 4개층위가 확인되었다.

1. 土 器

(1) 第I段階(그림13)

II지구 III·IV층이 이에 해당하며 孔列土器, 口脣部刻目土器, 直立口緣土器等 無文土器만 출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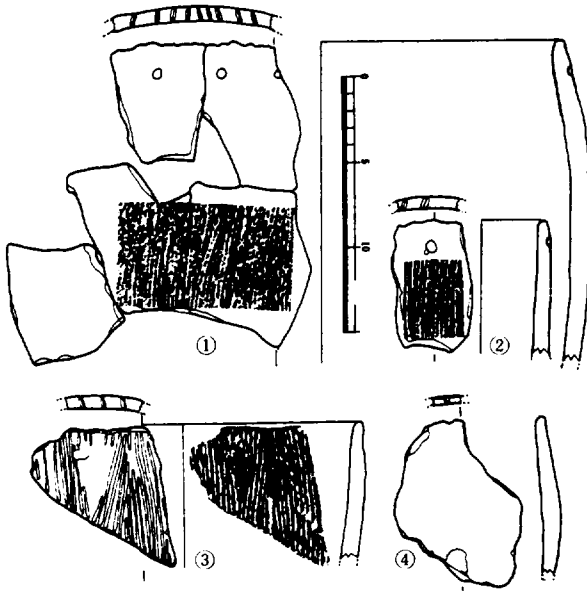
공렬토기는 함경도지방에서 처음 출현한 것으로 아가리 바로 밑에 지름 0.5cm 내외의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뚫은 토기를 말한다. 광지패총출토의 경우, 구멍은 바깥에서 반관통한 변형양식을 보여주며, 대부분이 直立口緣이나 한점은 外反口緣長頸壺의 것이고, 안에서 반관통의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공렬토기 전부가 동시에 입술면에 톱니날이 새겨진 골아가리토기(口脣部刻目土器)와 복합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복합현상은 앞서 말한 함경도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同土器가 전파하는 경기도·강원도·충청도·경상도 지방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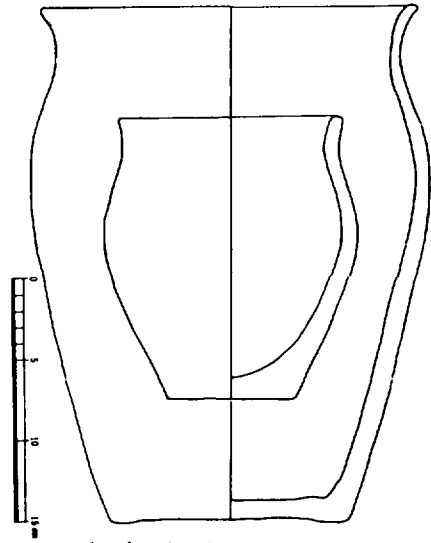
구멍이 뚫리지 아니한 단순한 골아가리토기 또한 南韓에 국한된 形式으로 同곽지 패총 출토품경우 深鉢形의 것이 대부분이다.

이 두가지 토기형식은 대체로 밝은 적갈색을 띠고, 胎土에 보강제로서 비교적 가는 모래를 섞은 것이 대부분으로, 다음 II단계의 무문토기가 굵은 현무암 알갱이를 섞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14) 李白圭, “京畿道無文土器·磨製石器-土器編年을 中心으로” 「考古學」第3輯, 1974. pp. 53~129.



(그림 13) 郭支里 第I段階 無文土器



(그림 14) 郭支里 第II段階
外反口緣 無文土器 (A式)

아무 장식이 없는 곧바른 아가리의 直立口緣土器도 同 文化層 단계를 대표하며, 이밖에도 粘土帶 口緣土器片 1점, 褐色磨研土器 1점, 黑色磨研土器 수점이 전한다. 후자의 갈색마연토기 또는 흑색 마연토기는 두께가 0.4cm 정도로 얇고 고운 점토 성분의 대토에 겹면만 각기 갈색 및 흑색을 나타 내는 것으로, 후자는 긴 목과 볼룩한 器腹部片으로 보아, 長頸壺계통임을 알 수 있다.

(2) 第II段階

II지구 I·II층이 이에 해당하며 무문토기로 外反口緣항아리土器(A式)와 金海式土器가 이를 대표한다.

A. 無文土器

무문토기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外反口緣土器이고, 그밖에 Cup形土器 및 토기뚜껑, 손잡이토기 등도 數點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外反口緣항아리土器 또는 外反口緣A式土器(그림14)는 아가리가 크게 벌어지고, 입지름에 비해 바닥이 좁아 1:1.5의 비율을 보이는 토기로서, 器腹部의 최대지름이 어깨에 있는 토기이다.

胎土에는 직경 2~3mm 이상되는 현무암 알갱이가 섞여 있는데, 그 입자의 모양이 둥그스름하여, 바닷물 풍화작용을 받은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同 보강체의 채취지는 현무암 바위가 노출된 가까운 해안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토기 胎土에 조개껍질片도 포함된 것으로 알 수 있고, 더우기 현미경조사를 통하여 同 현무암알갱이 및 土器胎土를 분석한 결과 성게 유충등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확실하다.¹⁵⁾

15) 濟州大學校 海洋學科 尹正守教授의 도움을 받음.

그릇 겉면은 슬림을 입혔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물에 적신 손으로 물칠하여 다듬었으며, 대부분 적갈색을 띠고 內土와 外土의 구분이 거의 않된다.

기복부의 그릇두께는 1cm를 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전형적인 무문토기보다 단단하여 燒成度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릇의 형태는 크기에 관계없이 거의 均一한 데 비해 토기의 용적은 큰것은 5ℓ에서, 작은 것은 1ℓ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비록 형태는 같을지라도 이렇게 다른 크기의 토기가 同一한 용도에 쓰였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릇의 용도는 형태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크기로서 구분된다 하겠다.

한편 同 외반구연 A式土器와 짝을 이루는 토기뚜껑이 5點 발견되었는데, 모두 지름이 20~22cm이며, 꼭지모양으로 볼 때 원통형과 장방형 두가지 형태가 있다.

Cup形土器는 밑굽이 卍족한 원뿔모양으로, 5점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1점은 겉면에 붉은 칠을 하여, 赤色磨研土器를 연상케 한다.

손잡이토기에는 장방형자루모양의 손잡이, 고리모양, 또는 半球모양에 가로로 구멍뚫은 모양, 그리고 퇴화된 꼭지모양의 손잡이 토기가 있으나 몇점 않된다.

B. 金海式土器(그림15)

김해식토기는 앞서의 무문토기에 비해 극히 적은 양이 출토하여, 그 파편의 수는 20여점에 불과하다.

打捺무늬 灰色 제통의 金海式土器에 대해서는 학자마다의 분류자세 및 성격과악이 조금씩 달라, 동 광지패층出土 김해식토기의 파악에 있어 구체적인 분류는 나름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즉 ①胎土와 燒成度에 있어 무문토기속성을 그대로 이어 받은 赤褐色 軟質의 타날무늬토기 ②灰白色 혹은 灰褐色을 띠는 瓦質土器 ③灰青色, 黑灰色에 가까운 태토에 두들기면 금속음을 내는 硬質土器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두께는 대부분 0.4~0.5cm 내외이다. 格子文, 集線文, 繩蓆文 등이 타날되어 있고, 간혹 가로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은 예가 보인다. ①軟質土系統은 태도에 일부 모래 혼입이 있으나, ③硬質土器는 고운 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였으며 ②와 ③이 同 김해식토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3) 第Ⅲ段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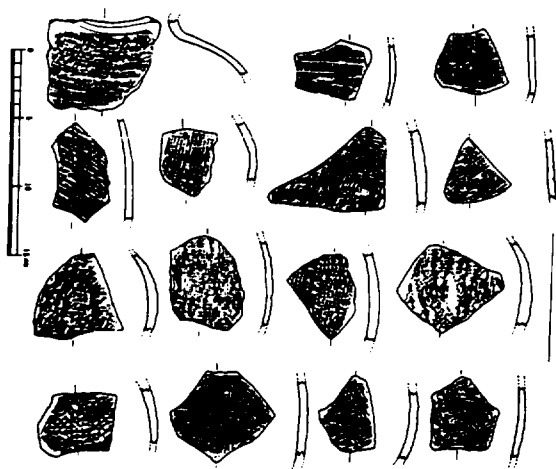
제Ⅲ지구 전층위가 이에 속하며 無文土器로서는 外反口緣深鉢形土器(B式) 뿐이고, 그밖에 三國時代 陶質土器가 同단계를 대표한다.

A. 無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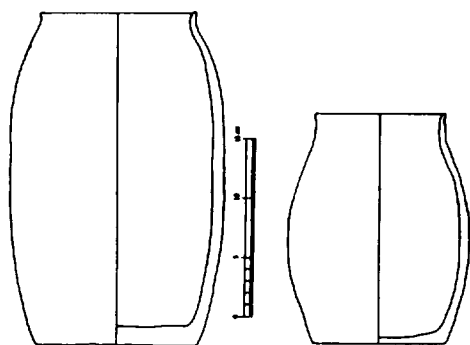
同地區 출토 外反口緣深鉢形土器 혹은 外反口緣B式土器(그림16)는 아가리의 外反度가 앞서 Ⅱ지구 A式土器 보다 훨씬 작고, 바닥지름과 입지름이 거의 같아 1:1의 비율을 이룸과 동시에, 器腹部의 최대지름이 높이의 중간쯤에 위치하여 보다 안정된 형태를 보여준다.

태도에는 보강제로서 A式토기와 달리 굵은 현무암알갱이를 혼입한 예는 거의 없고, 대신 보다 고운 휘석·사장석·각섬석 등을 혼입하여 보다 정선된 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릇겉면은 예새같은 도구로 문질러 매끈하게 다듬었으며, 슬림을 입혀서인지 몰라도 태토의 안과 속의 색깔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색깔이 짙어서 暗赤褐色을 띠고, 굳기정도가 더



(그림 15) 郭支里 第Ⅱ段階 金海式土器



(그림 16) 郭支里 第Ⅲ段階 外反口緣土器 (B式)

욱 단단하여, 토기를 구워내는 소성도는 이제 무문토기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태토의 두께는 A식보다 훨씬 고르고 얇아져, 가장 두터운 器腹部의 두께는 0.8cm내외 것이 보통이다. 또한 口緣部를 성형할 때 초보적인 회전받침을 이용한 흔적이 보이는 등 제작수법은 전반적으로 外反口緣A式土器보다 발달된 양상을 보인다.

그 크기는 작아져 입지름 11cm 내외가 보통이고 용적으로는 1.5ℓ를 크게 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와 짝을 이루는 토기 뚜껑도 역시 작아져 지름 11cm 내외가 主流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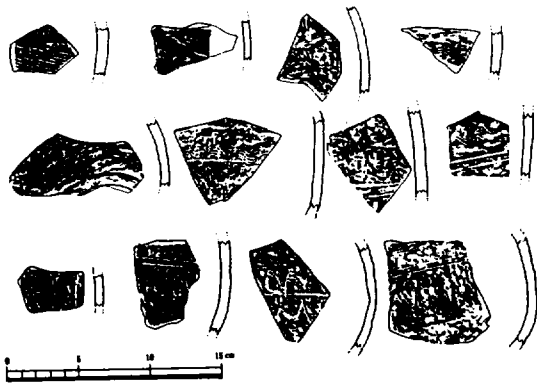
同 토기에는 그릇겉면에 끓일 때 음식물액체가 흘러 시꺼멓게 탄화된 흔적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단계는 다음에 소개할 灰青色 陶質土器가 상당히 보편화된 단계로서 그 器種 또한 전단계의 김해식토기와 달리 다양하다. 따라서 이제 무문토기는 음식물을 끓이는 등, 一定한 용도에 한정해서 사용되고, 容器로서의 여러 使用部面은 器種이 다양한 陶質土器에 의존한 것으로 파악된다.

B. 三國時代 陶質土器(그림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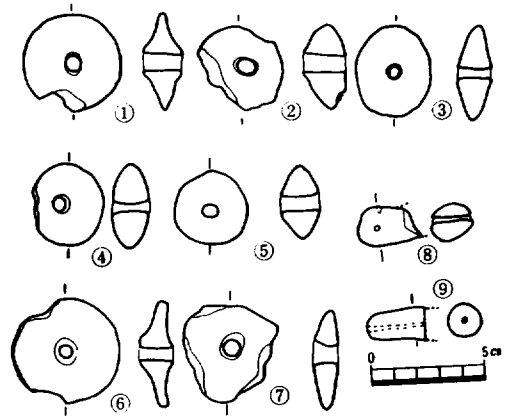
陶質土器로서는 앞서의 金海式土器전통의 타날무늬토기와 함께, 새로운 陰刻手法의 波行線무늬토기가 Ⅲ지구 최하층에서부터 출토한다. 두께는 0.6~0.8cm 내외로서 김해식토기보다 두터우며, 완전한 拓器質이다. 색깔은 灰青色계통이 압도적이고 일부 흑갈색 자연유가 덮힌 예도 있다. 무늬는 파행곡선무늬이외에 타래무늬도 있고, 작은 多齒具로 눌러서 만든 點列文도 눈에 뜨인다.

口緣部파편은 전부 밖으로 벌어졌고, 입술면에 한두줄기 홈이 나 있는 점이 김해식토기와 다르다. 底部는 전부 平底이거나 낮은 굽이 달려 있으며, 高坏形式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 아가리에 턱이 진 盤口瓶과 같은 형식도 출토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전체 器形을 알 수 있는 높이 50cm의 大形 長頸壺 1점이 발견되었다.



(그림 17) 郭支里 第Ⅲ段階 三國時代 陶質土器



(그림 18) 郭支貝塚出土土製 가락바퀴 및 그물추

2. 土製 및 石製遺物

(1) 土製品

흙으로 빚어 만든 것으로, 圓板形土製品, 가락바퀴 및 소형 그물추가 확인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Ⅱ 단계 Ⅱ 지구 I·Ⅱ 층에서 출토한 것이다.

A. 圓板形土製品

무문토기 器腹部片을 이용하여 원판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것으로 큰 것은 지름 10cm에서 작은 것은 3cm까지 있다. 용도에 대해서는 가락바퀴 미완성품 혹은 시루뚜껑마개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B. 가락바퀴(그림18-①~⑦)

거의 全段階에서 골고루 출토하였으며 총 15점이 발견되었다. 주판알모양, 샷갓모양, 원판모양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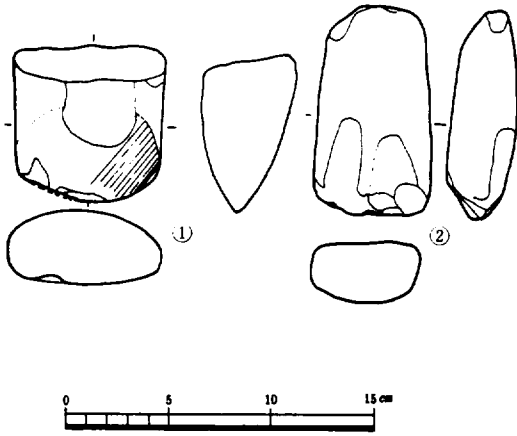
C. 어망추

어망추로 확실한 것은 1점이 발견되었으며 비교적 작은 원통모양의 한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은 것이다.(그림18-⑧) 다른 1점은 원통형이긴 하나 보통 어망추와 달리 옆끝에 가로구멍을 뚫은 것으로 마치 曲玉을 모조한 것처럼 보인다.(그림18-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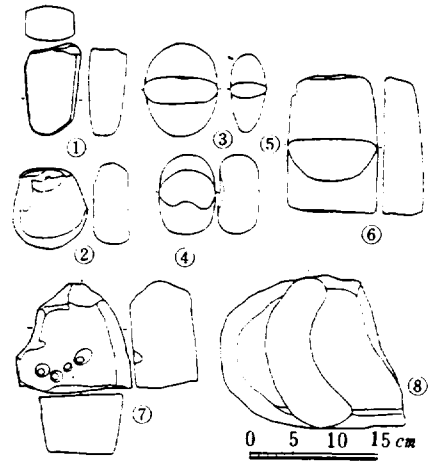
(2) 石製品

同 각지패총에서 발견되는 石製品의 대부분은 현무암으로 만든 갈판·갈돌등의 調理具와 그물추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원판형석제품이 차지한다.

그외 돌도끼 및 공이가 일부 전할 뿐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패총자체가 더 이상 쓸모 없는 생활도구만 의도적으로 폐기하여 형성된 遺構라는 성격 때문에도 그러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용도자체가 石製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石器類를 제외하고는 Ⅱ·Ⅲ 단계로 대표되는 郭支貝塚의 문화단계



(그림 19) 郭支里塚出土 돌도끼



(그림 20) 郭支里塚 石製穀物加工道具 一括

는 생활도구에 있어 석기류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마지막 제Ⅲ문화단계의 경우 더욱 심화된다.

A. 工具

도끼로서 조갯날도끼(蛤刃磨製石斧) 1점, 그리고 날부분을 타제수법으로 조정하여 거친 날을 가진 도끼 1점이 있다.(그림19) 끌또는 대패모양의 파편이 각 1점이 있으나 확실한 용도는 모르며 따라서 끌, 자귀, 대패등의 二次加工具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同 패총의 특징이라 하겠으며, 그밖에 반월형석도 미완성형태와 같은 모습의 打製石刀가 한점 전할 뿐이다.

B. 調理具(그림19)

곡물을 받치는데 사용되는 갈판로서는 갈판 수점과 확돌 1점, 그리고 소형 홈돌 수점이 전한다.

① 갈판과 갈돌

갈판은 그 사용면의 형태를 보아 평평한 것, 완만한 面을 이룬 것, 다소 不定型을 이루는 것등이 있으며, 평평한 갈판 1점의 뒷면에는 發火孔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1cm 내외의 구멍이 4개 형성되어 있다.¹⁶⁾ 갈판과 짝을 이루는 갈돌은 모두 횡단면 반월형 혹은 반타원형으로, 평면형태는 장타원형과 장방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그림20-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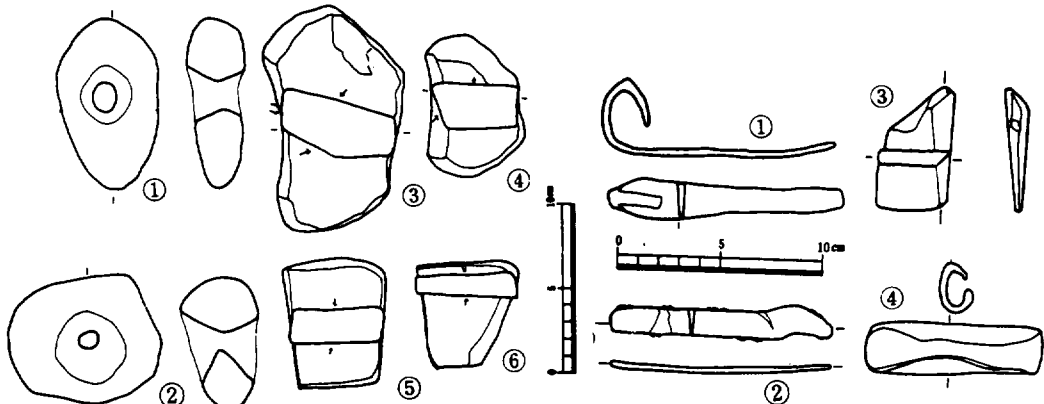
② 확돌

확돌은 반이 깨진 것으로 두툼한 현무암들의 한가운데를 깊게 우묵하게 한 것이다. 갈판이 갈돌을 앞뒤로 끌고 밀어 곡물을 갈아내는 것과 달리, 확돌을 확돌공이를 회전시키거나, 수직방향으로 찢어 곡물을 가공하는데 사용된다.(그림20-(8))

③ 홈돌

홈돌은 7점이 발견되었으며 양쪽면에 홈을 판 것은 1점뿐으로 전부 한쪽面에만 홈이 나 있다.(그

16) 한국고고미술연구소,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1984, p. 46.



(그림 21) 郭支貝塚出土石製 그물추 및 솥돌

(그림 22) 郭支貝塚出土 鐵製品

림 20-③·④) 이와 짝을 이루는 홈돌공이는 4점 발견되었는데, 모두 自然石을 거의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길이는 10cm 미만이다.(그림20-⑤)

④ 공이와 몽돌

도끼모양을 이루나 타격면이 곱게 갈린 공이(그림20-①)와, 둥그스럼한 자갈을 이용한 공이 1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Ⅱ지구 Ⅱ층 出土이다. 공이 1점에는 타격면에 붉은 물이 들어 있는 것이 있는바 앞서도 보았듯이 광령리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

C. 어로도구 및 기타

그물추로서, 길이 10cm 내외의 둥글납작한 현무암편을 이용, 마치 큰 고리모양처럼 한 가운데에 큼직한 구멍을 뚫은 것이 10여점 출토되었다. 구멍은 양쪽에서 뚫었으며 전체평면모양은 대체로 타원형을 보인다.(그림21-①·②)

한편 역시 현무암製로 작은 것은 지름 3.5cm로 큰 것은 9cm 정도의 원판형석제품이 수십점 출토하였는데, 용도는 얼른 추정하기에 힘들다.

솥돌은 10cm 미만의 小形으로 여러點이 출토되었는데, 한쪽 넓은 면만을 이용한 형식(그림21-⑤·⑥)과 폭이 좁은 옆면도 모두 사용면으로 한 형식(그림 21-③·④) 두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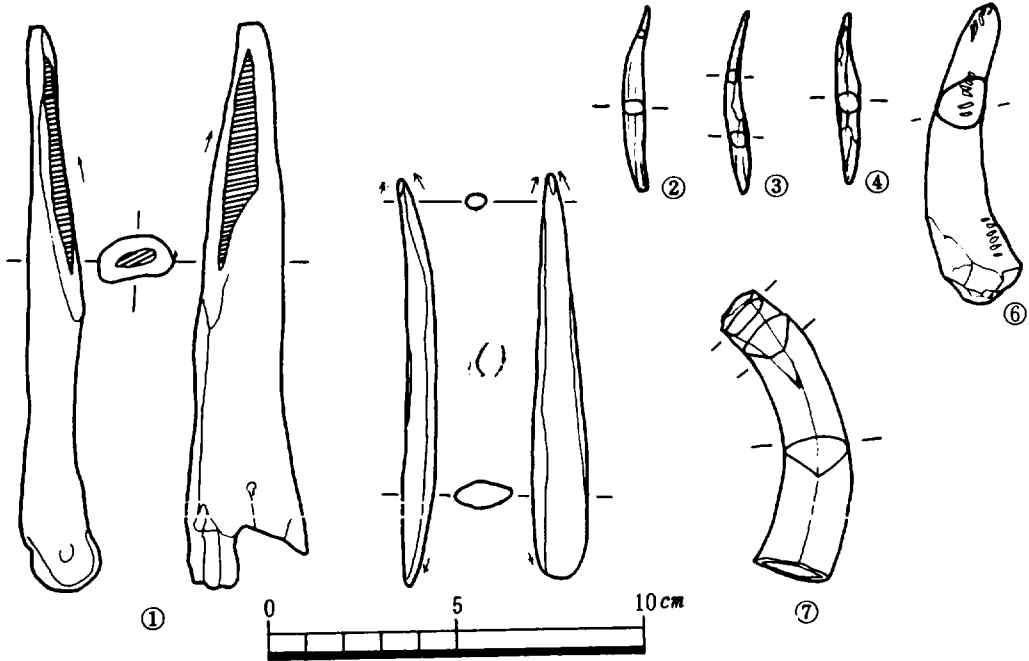
3. 鐵製品 및 骨角器 其他

A. 鐵製品(그림22)

철제품으로는 Ⅱ단계에 속하는 Ⅱ지구 Ⅱ층에서 2점의 鐵製刀자가 발견되었고,(그림22-①·②) Ⅲ단계의 Ⅲ지구 Ⅱ층에서도 2점의 낫 및 자루모양의 鐵器가 발견되었다.(그림22-③·④)

전자의 경우 연대가 올라가서 그러한지 몰라도 부식정도가 보다 심하며, 한점은 길이 10cm, 또한점은 길이 17cm로서 자루부분이 휘어졌다.

후자의 낫모양 철기는 길이 6cm로 鑄造品이고, 다른 한점은 원래 철판인 것을 구부러 길이 8.5cm의 원통형자루로 만든 것이다.



(그림 23) 郭支貝塚出土 骨角器

B. 骨角器 기타

대부분 Ⅱ 단계 Ⅱ 지구 Ⅱ 층 출토품으로 뿔로만든 刀子柄, 사슴脛骨 등으로 만든 송곳 모양 도구 등이 전하나 그 數는 10여점 밖에 안된다. (그림 23) Ⅲ 단계, Ⅲ 지구 Ⅱ · Ⅰ 층 출토품으로는 사슴뿔을 잘라내어 다듬었으나 용도를 추정하기 어려운 3점이 전할 뿐이다.

同 패총에서는 당대주민이 먹고 버린 조개류와 함께 동물뼈가 다량 출토되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사슴, 멧돼지 및 소종류로서, 각기 예리한 금속기로 잘라 내거나, 내리친 도살흔을 많이 보인다. 소의 뼈는 Ⅲ 단계 Ⅲ 지구에서 거의 나왔으며 따라서 야생동물이 아닌 소의 경우, 그 사육이 Ⅱ 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르나 그 사육 성행한 것은 Ⅲ 단계 부터일 가능성이 있다.

조개류에는 소라고둥, 전복, 굴, 오분재기등이 있었으며, 조개편 1점에는 한끝에 두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끈을 꿰수 있게 한 것이 있다.

4. 貝塚과 支石墓

(1) 貝塚

조사된 貝塚은 앞서 말했듯이 Ⅱ · Ⅲ 지구 두지점이며, 각기 4개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第Ⅱ地區 層位

1) 第Ⅰ層 - 表土層으로서 지하 20~30cm까지이며 경작으로 인해 교란된 층위이다. 패각이 혼입되었다.

2) 第Ⅱ層-지하 60~80cm까지이며 많은양의 패각과 검은 부식토가 혼합된 混土貝層으로서 이 층위에서 유물의 대부분이 출토되었다.

3) 第Ⅲ層-지하 80~130cm까지로 패각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든 흑갈색부식토층이다.

4) 第Ⅳ層

地下 130~160cm까지로 黃褐色土層이다. 패각은 거의 없고 토기유물도 小片이 극히 극소량 출토했을 뿐이다. 同층위이하의 황갈색 생토층이다.

② 第Ⅱ地區層位

1) 第Ⅰ層-表土層으로서 지하 15~25cm까지이다. 패각 및 동물뼈가 혼입되었다.

2) 第Ⅱ層

지표아래 45~65cm까지로 패각 및 동물뼈의 혼입량이 가장 많은 흑갈색혼토층이다.

3) 第Ⅲ層

지표아래 85~97cm로서, Ⅱ층보다 패각 및 동물뼈의 혼입량이 훨씬 줄어들었다.

4) 第Ⅳ層

지표아래 100~117cm까지로 패각·동물뼈의 혼입이 거의 없는 황갈색토층이다. 이하는 생토층이다.

이러한 층위상황으로 보아 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Ⅱ지구 패총의 경우, 맨 아래 Ⅳ층과 Ⅲ층은 패각 또는 동물뼈의 혼입이 거의 없는 土壤層인 바, 이 층위가 속하는 第Ⅰ문화단계에서 패각채취 및 어로, 수렵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음 同지구 Ⅱ층과 표토층인 경우는 상황이 달라서 다량의 조개와 동물뼈가 출토됨으로, 同文化 층위 段階에서는 어로·수렵이 적극적으로 행하여졌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로·수렵행위에 의해 잡은 조개·동물등을 잡아 먹고 버린 껍질·뼈들로써 同 패총이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Ⅲ지구경우 역시 최하층인 第Ⅳ層단계는 패총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로서 패각의 퇴적은 제 Ⅲ층 단계부터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Ⅳ층과 그위 Ⅲ~Ⅰ층의 출토 토기형식은 거의 同一하여 Ⅲ지구 全層位는 시기적 선후관계는 있다하여도 同一文化단계로 파악될 수 있고, 따라서 第Ⅱ지구 Ⅱ층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貝塚文化가 第Ⅲ지구 최하층시기에 중단되었다가 同Ⅲ층에서 새로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이미 다른 지점에서는 패총이 형성되었으나, 同Ⅲ지구나 지점은 다소 늦어진 시기에 패각폐기장소로 선택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2) 支石墓

여기서 소개할 支石墓는 1969年 앞서 소개한 광지밭굴조사지점에서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155m의 과오름 기슭에서 조사된 것이다.¹⁷⁾

4기가 확인되었는바 전부 塊石狀의 支石이 上石을 받치는 형식으로 전형적인 南方式형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地下 埋葬部가 조사된 1基의 支石墓는 上石의 크기에 비해 훨씬 작은

17) 崔夢龍, "郭支里支石墓踏査報告" 「서울文理大學報」第14輯, 1967, pp. 253~256.

깊이 50cm에 길이 80cm의 타원형 石郭시설을 갖고 있었으며 또 다른 1基의 支石墓에서도 깊이 83cm 길이 80cm의 堅穴石 槨施設이 確認되었다.

VI. 兩遺蹟의 文化內容

1. 光令里遺蹟

광령리유적의 경우 뚜렷한 층위조사에 의하지 않고 단순한 지표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앞서 소개한 유물과 支石墓의 각 형식이 同一한 文化段階 또는 同一時期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게 斷言을 내릴 수 없다. 여기서는 일단 이들 모두를 하나의 文化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外反口緣과 直立口緣無文土器가 유행하며 金海式硬質土器가 공반된다.

(2) 磨製石器로는 工具類로서 도끼, 대패, 자귀등이 있고 調理具로서 갈돌, 갈판, 확돌, 흙돌등이 성행한다. 이들 種類 및 出土量을 보아 광령리 경우 生活道具에 있어 磨製石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工具類에 木工具로서 一次加工 및 二次加工具에 해당하는 石器 全種類가 망라되어 있어 당시 이 지역이 森林地域임으로 개간하는데 이들 石器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파악된다. 곡물 가공의 調理具가 다량 출토되므로 농경생활을 영위했음이 분명하며, 農耕掘地具로서도 파악되는 흙자귀(有溝石斧)와 수확도구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打製石刀 및 기왕에 수집된 三角形石刀가 이를 傍證해 준다 하겠다.

(3) 그러나 石器로서 어로도구와 사냥도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어로도구로는 그물추 1점이 있으나 이는 外都川에서의 어로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며, 同유적의 입지조건으로 보아 멀리 해안가에서의 어로작업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해안에서의 遠距離는 당연히 同 유적에서 소극적인 어로생활을 유도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어로도구의 내용도 극히 빈약할 수밖에 없겠다.

한편 사냥도구로는 기왕에 수집된 화살촉 1점을 들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은 극히 빈약한 것이다.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토양에서, 보다 초보적인 田作農耕과 하천에서의 단순한 어로행위로서 당시 광령리주민의 식량을 모두 충족했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광령리에서 당시 수렵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대체로 金海式 土器流入과 짝을 이루는 鐵器 사용의 증거를 단순한 지표조사방법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보았듯이 同遺蹟에서 사냥활동은 불가피한 것이고 따라서 石器에서 발견되지 않은 화살촉등의 수렵도구가 철제뿔로 만들어져 사용되었을지 모른다. 금후 연구과제이다.

(5) 光令里支石墓는 총 20여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형식으로 보아 南方式 및 蓋石式이 있고, 그의 濟州島 特有형식의 지석묘가 있다. 경사진 비탈면을 이용하여 한쪽은 낮게 고이고 다른 쪽은 板石狀의 支石으로 높게 고인 것, 그리고 수매의 板石狀支石을 병풍처럼 돌린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들 형식은 地上埋葬일 가능성이 있으며, 형태상의 변천과정을 보아 이 제주도 특수형의 支石墓는 보다 늦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내부출토유물에 金海式土器가 있음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다.

2. 郭支里遺蹟

同유적에서는 층위조사에 의해 3段階로 시기구분이 가능하였으므로 여기서도 각 단계별로 文化內容을 요약·설명하겠다.

A. 第Ⅰ段階

(1)Ⅱ지구 Ⅲ·Ⅳ층이 이에 속하며 孔列土器, 口脣部刻目土器와 粘土帶口緣土器 및 黑色磨研土器 등이 사용된 시기이다.

(2)同時期는 아직 철기사용이 시작되지 않았으며 생활도구로 주로 石器가 사용되었을 것이나 확인은 되지 않았다.

(3)同文化層은 패각층이 아니므로 동단계에는 패층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어로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B. 第Ⅱ段階

(1)外反口緣A式無文土器와 金海式土器가 同단계를 대표한다. 무문토기로는 컵형토기가 일부 전 하지만 대부분이 同外反口緣A式土器이고 金海式土器 또한 소량 출토하는 것을 보면, 그릇의 여러 용도는 이 外反口緣土器가 맡는 것으로 보인다. 용도차이는 形態가 아닌 크기로써 구분되며, 金海式土器는 주로 항아리형태이므로, 특별한 저장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2)石器로서는 木工具類는 도끼 數點이 전할 뿐이며, 대패, 자귀등의 二次加工을 위한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갈돌, 갈판, 활돌공이, 몽돌 等の 곡물가공도구는 多量 출토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현무암제 그물추가 여러 점 발견되었으므로 同문화층이 패각층이라는 사실과 함께 漁撈活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사냥도구로 확인된 石製유물은 없었다.

(3)同문화층에서 발견된 2점의 鐵製刀子是 본 단계에 본격적으로 철기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각종 骨角器의 출토는 경상도지방 곳곳에서 발견되는 金海期 貝塚文化와 유사한 性格을 보여 준다.

(4) 각종 조개류와 함께 멧돼지, 사슴 등의 뼈가 출토하고 이들 뼈에 금속기를 사용한 도살흔이 많이 보이는 바, 同문화단계에는 식량획득을 위해 비단 農耕뿐만 아니라 어로 및 수렵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C. 第Ⅲ段階

(1)無文土器의 사용이 지속되나 이제 무문토기는 高火度 燒成, 정선된 胎土, 초보적인 회전받침 사용等으로 인해 전형인 무문토기단계에서 벗어나 있다. 器形은 크기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입지름과 바닥지름이 비슷한 深鉢形이다.

또한 이 시기는 三國時代 陶質土器의 제작이 성행한 시기로 金海式 계통의 打捺무늬가 함께 陰刻

手法의 波行曲線무늬 및 點列무늬토기가 등장한다. 그 器形은 다양하여, 항아리, 보시기, 瓶 등이 있으며 출토량 또한 많아져, 무문토기는 이제 그릇겉면에 음식물용액이 씨꺼렇게 탄화되어 붙은 사실을 보아서도 주로 끓이는 용도에 사용되고 대신 陶質土器가 容器로서의 그밖의 여러용도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2) 同단계 문화층에서 石器로는 갈돌, 갈판, 숫돌 같은 종류만 발견되므로, 이에 石器의 용도는 지극히 한정되었고, 대신 鐵製品이 실생활도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同 문화층에서 발견된 철제품 2점이 이를 방증한다.

(3) 철기류 보급 등으로 農耕技術은 발달되었겠으나, 여전히 수렵, 어로활동을 통해 많은 양의 식량을 조달함이 同 문화층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동물뼈 및 패각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소뼈 출토량이 많아져 소의 사육이 이 시기에 활발해졌음을 추정하게 한다.

Ⅶ. 編 年

光令里유적의 편년근거는 ①直立口緣 및 外反口緣 無文土器의 存在 ②金海式硬質土器의 出現 ③磨製石斧, 有溝石斧 및 대패 등의 磨製石器 盛行에서 찾을 수 있겠다. 즉 無文土器末期에 金海式土器가 流入되면서도 여전히 磨製石器가 성행한 사실을 들 수 있는데 비슷한 類型의 文化內容은 경기도 加平郡 馬場里에서 발견된다. 同 유적의 연대에 대해서 金元龍은 漢의 鐵器文化가 처음 파급되는 단계의 유적으로 파악하여 B.C. 2C를 上限으로 보았다.¹⁸⁾ 광령리 경우도 그 시간폭을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그와 비슷하거나 또는 다소 늦은 연대를 잡아야 할 것이다.

광지리 제Ⅰ단계문화는 ①공렬토기·골아가리토기 등 보다 이른 형식과 ②흑색마연토기 및 粘土帶土器의 보다 늦은 형식의 무문토기가 공반되는 양상을 근거로 편년을 잡아야 할 것이다. 釜山 朝島 및¹⁹⁾ 昌原 城山貝塚의²⁰⁾ 金海土器 유입이전 단계의 最下層이 이와 견줄만하며 따라서 同연대의 上限은 B.C.4~3C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광지리 Ⅱ단계는 ②金海土器出現 ②外反口緣無文土器(A式) 성행 ③鐵製品 및 骨角器使用 등으로 경상도지방 전역의 金海期貝塚 文化層 및 경기도·강원도 지방의 初期 鐵器時代 住居址유적의 文化내용과 비교가 된다. 그 추정연대는 각 보고자마다 다르나 대체로 漢文化가 南韓지역에 본격적인 영향을 준 B.C. 1C 이후가 될 것이며, 앞서의 광령리유적보다는 ①直立口緣無文土器 쇠퇴 ②磨製石器類 빈약으로 그 上限年代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광지리 제Ⅲ단계는 ①陰刻波狀曲線무늬 陶質土器出現 ②外反口緣深鉢形 無文土器(B式)의 발전 ③磨製石器類 사용의 종말로 요약되어질 수 있으며 편년의 근거는 ①파상곡선무늬 陶質土器의 출현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8) 註9) 論文

19) 韓炳三·李健茂, 「朝島貝塚」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9冊, 1967.

20) 文化財管理局,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查報告」, 1976.

同土器의 出現은 金元龍에 의하면 原三國時代末 또는 新羅早期에 해당하는 이른바 府院洞期이며 同年代는 A.D. 250~350년으로 파악되고 있다.²¹⁾ 따라서 碓洲 III段階의 上限年代는 A.D. 3~4C 경에서 잡아야할 것이다.

VIII. 結—綜合考察

(1) 濟州島의 地形은 火山活動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그 대부분이 火山灰土壤으로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河川은 永久流水川인 경우가 드물어 田作 農業에 의할 수 밖에 없고, 그것도 土壤의 風化作用이 더욱 진전되고 평탄한 대지를 이루는 해안지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同지역은 또한 바다에 가깝고 河川을 끼고 있어 生活用水 취득이 容易하기 때문에 어로 및 목축활동에 더욱 유리하여 先史時代부터 住民의 居住地域으로서 각광을 받아 왔다.

(2) 그중 光令里와 郭支里 유적이 위치한 濟州島 西北海岸地域은 道內 가장 비옥한 土壤群이 분포할 뿐만 아니라 해안을 따라서 湧川帶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더욱 立地條件이 좋아 古來로 村落이 밀집 형성되었을 것인바, 無文土器時代의 경우 관련 유적의 분포 상황이 이를 잘 말해준다.

(3) 兩遺蹟이 위치한 곳은 특히 큰 河川을 끼고 있으며, 우물에 의한 취수가 더욱 유리한 점에서 서로 공통된다. 그러나 광령리는 해발 70~90m의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碓洲경우 해안에 보다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해발 30~40m의 너른 台地上에 위치한 점에서는 입지조건을 보이며, 따라서 전자의 경우 森林개간의 필요성 대두, 해안 어로활동 불리, 후자는 海岸湧川의 取收容易 및 어로활동 유리 등의 차이를 보인다. 이로써 郭支里유적이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광령리에서는 地表調査에 의해 확인된 限, 金海式土器流入보다 크게 오래되지 않은 無文土器 使用時期에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하고 各種 磨製石器를 이용, 삼림지대를 개간하고 田作農耕을 하여 얻어진 곡물을 갈판등으로 가공하여 식량을 조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은 토양에서 재배된 발작물만으로 식량을 충당하지 못하였을 것인 바, 주변에서 서식하던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인근 外都川에서는 단순하나마 漁勞活動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地表採集된 石器에 수렵도구가 거의 보이지 않은 것은, 이들 도구가 당시 보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鐵製品으로서 제작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거리상 해안에서의 어로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따라서 貝塚遺蹟이 남지 않았다.

(5) 同광령리유적에서의 유물분포가 外都川沿邊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당시 주민이 同하천에 상당히 의존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外都川의 水量이 풍부한 편도 못되고, 경계행위 또한 어로활동을 제외한 제약된 農耕과 수렵에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밖에 없어, 광령리 無文土器社會의 人口증가추세에 맞추어 식량 획득량이 넉넉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三國時代 이후 同지역의 대부분 주민은 어디론가 移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同유적지 일대

21) 金元龍, “金海府院洞期の 設定” 『韓國考古學報』 第12輯, 1982, pp. 21~37.

에 三國時代 이후의 유물이 크게 눈에 띄이지 않는 사실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 유적에 支石墓群이 형성된 것은 물론 三國時代以前이며, 이는 당대에 상당한 규모의 族長社會(Chiefdom Society)가 번성했음을 말해주는 좋은 증거이겠다.

(6) 郭支里 유적에 처음 住民이 거주한 것은 孔列土器文化段階이며, 이 시기의 것으로 확인된 石器遺物은 없으나 육지부 경우를 보아 생활도구의 대부분은 磨製石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石器를 이용, 단순한 農耕·漁撈·狩獵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鐵器를 이용한 보다 발달된 기술에 의한 적극적인 경제행위는 다음단계에 가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貝塚 자체 유적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도 다음 단계부터이겠다.

(7) 광지유적의 제2단계는 앞선 시기에 無文土器가 계속 사용되면서 새로이 金海式土器製作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無文土器는 外反口緣항아리土器(A式)가 대부분으로 그릇의 여러 용도를 맡으며, 金海式土器는 항아리형태 및 出土量의 적음으로 보아 특별한 저장용도에 국한해서 사용됐을 것이다.

磨製石器의 사용도 지속되었으나, 곡물 가공도구를 제외하고는 새로이 유입된 鐵製品이 생활도구의 상당한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同 철제품을 기반으로 한 보다 발달된 기술로 수렵·어로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먹고 버린 패각 동물뼈들을 한곳에 폐기함으로써 패총의 형성이 본격화된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잡은 동물의 뼈와 뿔을 이용한 骨角器가 사용되기도 한다. 인근의 支石墓는 그 형식과 출토유물로 보아 同단계의 다소 이른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8) 광지리 제3단계에 이르러서는 무문토기제작기술은 절정을 달하여 전형적인 무문토기에서 벗어나며, 한편으로는 三國時代陶質土器가 상당량 사용된다. 무문토기는 거의 예외없이 外反口緣深鉢形土器의 일정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과 흘러내린 음식물이 시꺼멓게 탄화된 흔적이 많이 보이는 사실로 미루어 무문토기의 용도는 음식물을 끓이는 데에 한정되고, 대부분의 용도는 器形이 다양한 三國時代陶質土器가 맡는 것으로 파악된다.

철기의 보급이 많이 이루어져, 그를 토대로 보다 발달된 농경, 어로, 수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패총에서 발견되는 동물뼈중 소의 뼈도 다수 포함되므로 소의 사육은 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됐을 것이지만, 성행하는 것은 同단계가 아닌가 한다.

(9) 따라서 郭支里 유적의 경우 光舍里와 달리, 여러 좋은 立地條件 때문에 三國時代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큰 村落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絶代年代上으로 광령리는 B.C. 1C를 전후한 시기, 광지리는 B.C. 3~4C를 전후한 시기에 유적이 형성되어, 전자의 경우는 A.D. 3~4C 이후에까지 이어지지 못한 반면 후자는 그 이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광령리遺蹟文化는 대체로 郭支里유적 第2段階文化 혹은 그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比定된다 하겠다.

Summery

A Comparative Study of Kwanyǒng and Kwakchi

- Culture in 'Mumun T'ogi' Period -

Kim Jong-ŏp & Lee Chung-kyu

I. Both of Kwanyǒng and Kwakchi sites locate in the northwestern area of Cheju Island, the first is noted for the group of dolmens, the second for the shell-mound in prehistoric period.

Two sites belong to the thick soiled area in the vicinity of sea-shore, have a big stream, and so the more advantagable places for cultivation, domestication than the other spots in Cheju Island. But the geological environments of the two are a little different from one another: Kwanyǒng site in the hilly land 70-90M above the sea and the center of it 3kM distant from it, and Kwakchi in the lower land 30M altitude and 0.7KM from the sea-shore.

II. Archaeological data of Kwanyǒng site, which are collected through surface-survey method, informs the following facts:

(1) 'Mumun T'ogi' or 'plain coarse potteries' are widely prevalent and 'Kimhae potteries' also used; but stonewares of three kingdoms period are not discovered; that means Kwanyǒng culture began around B.C. 1C. and did not continue after A.D. 3~4C, three-kingdoms period.

(2) There are many stone-made tools and most of them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 wood-cutting or soil-digging tools such as axe, plane, adze and the grain-grinding tools such as pestle, mano and saddle quern. But fishing and animal hunting tools are scarcely discovered. This suggests that fishing and hunting practices were less prevailed than the cultivation-dryfield farming at the Kwanyǒng site.

III. (1) Kwakchi culture were clarified with a method of stratigraphical excavation of the shell-mound and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stages; ①rim-perforated Mumun T'ogi stage ②Mumun T'ogi with shallow rim(A) · Kimhae pottery stage ③Mumun T'ogi with shallow rim(B) · Three Kingdoms stone-ware stage. The first stage dates from B.C. 3~4C, the second from B.C. 1C, and the last around A.D. 3~4C, and so Kwakchi culture began earlier and continued later than Kwanyǒng culture.

(2) We cannot say positively with lack of enough data, but only guess that fishing and hunting are not prevalent more than farming in the first stage, because the cultural layers of this stage in the shell-mound do not contain animal bones and shells.

Most of stone-tools in the second stage are grain-grinding tools and fishing tools, and this reflects farming and fishing are prevalent. Some iron-made artefacts are also discovered in the

layers of this stage, and on the basis of these advanced metal tools· fishing and hunting are more efficient and prevalent than the preceeding stage. Therefore it is a natural result that we can find many animal bones and shells in those cultural layers.

In the last stage, Mumun Tog'i are much improved and stonewares are also made for a variety of uses. A few stone-made tools are discovered, with most of them grain-grinding tools and the more improved iron-tools also discovered in this stage.

Ⅳ. Therefore it is understood that the Kwakchi site had been inhabited by peoples longer than the Kwanyōng site. because the natural condition of the first is more advantagable than that of the second for the habitation.